



1st Week, October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9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차량, 지하수, 서비스, 가치, 차고지증명제
경제·관광	지하수, 가격, 관광객, 상승, 폐업
지역·사회	태풍, 해상, 인근, 이동, 낚시, 지하수

※ 분석 기간 : 9월 30일~10월 3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차량	- 제주시 서광로 버스중앙차로제 공사 재개 - 차고지증명제 관련 폐지 논란
	지하수	- 지하수 가치 재조명 포럼 개최 - 먹는샘물 산업에서의 지하수 관리 강조
	서비스	-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성과 - 제주 공공교통 서비스 개선
	가치	- 제주 물 세계포럼에서 지하수 가치 재조명 - 용암해수 활용 산업 육성
	차고지 증명제	- 차고지증명제 폐지 및 개선 논란 - 차고지증명제 개선 용역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지하수	- 지하수 가치 재조명 포럼 개최 - 삼다수 지하수의 청정성과 가치 강조
	가격	- 채소류 가격 급등 - 노지 온주밀감 가격 변동
	관광객	- 내국인 관광객 감소 - 제주관광 브랜드 강화 노력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 - 외식비 상승
	폐업	- 숙박업 및 음식점 폐업 증가 -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태풍	- 태풍 '끄라톤' 복상 - 태풍으로 인한 비 예보
	해상	- 해상 낚시 사고 - 해상교통관제센터 개국
	인근	- 횡간도 해상에서 침수 사고 발생 - 황우지 해안 실종 사고
	이동	- 태풍 끄라톤의 이동 경로 - 해양사고 대응
	낚시	- 갯바위 낚시 사고 - 해상 안전 규제 강화
	지하수	- 제주 삼다수 지하수 관리 강화 - 지하수의 중요성 재조명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제21회 중국-동남아시아 박람회 및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가 열리며 양측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함. 무역 규모가 6.41조 위안으로 증가했고, '일대일로'와 동남아시아 개발 계획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
- ✓ 광시성은 농촌 민박 서비스 발전을 위해 국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민박 산업의 발전 촉진
- ✓ 제3회 농촌 산업 및 문화 진흥 전시회, 지역 발전 가속화 차원에서 열린 전시회는 농촌 제품 및 관광 자원을 선보이며,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함. 농업과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
- ✓ 베이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드론 및 비행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저공 경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혁신과 지역 경제 발전을 강화
- ✓ 전국 최초의 스마트 관광 버스, 텐진에서 시범 운영 시작, 텐진 에코시티에서 자동 운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 관광 버스를 시범 운영하며, 친환경 교통과 관광 산업의 융합을 기대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AI 성장과 LNG 수요 급증 예상, AI 및 데이터센터 산업이 급 성장하면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 ✓ 싱가포르 기업, AI 기반 중소기업 채용 플랫폼 '보스잡' 성과 발표, AI 기반 채용 플랫폼 '보스잡'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재 매칭 성공률 제고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팜유 생산자들이 EU의 산림파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지속 가능한 팜유 산업을 목표로 설정
-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대 240억 링깃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갱신하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아세안의 제조 및 서비스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설립 및 첨단 기술 통합을 목표로 설정
-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싱가포르와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
- ✓ 말레이시아와 라오스는 전력 공급 확대 및 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 말레이시아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일본

- ✓ 일본이 아세안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며, 전문 기술 지원을 약속
- ✓ 일본 크루즈는 도쿄만의 레스토랑 크루즈 선박을 37년 만에 교체 함께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수소 연료 엔진을 장착할 예정
- ✓ 미야기현은 수도권외 여자 대학과 취업 지원 협정을 체결하여, 지역 기업과의 인턴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
- ✓ 아오모리현에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라이드쉐어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

-
- ✓ 쿠마모토의 버스·전철, 교통계 IC 카드 사용 종료 예정, 쿠마모토현은 2024년 11월부터 교통계 IC 카드 사용을 종료하고, 2025년부터 신용카드 및 터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 ✓ 북큐슈 토바타 물류, 대형 물류 거점 개설 북큐슈 지역에 새로운 물류 거점이 개설되며, 가정 배송과 국제 물류 허브로의 활용이 기대

 - ✓ 시가 은행은 친환경 투자와 대출을 지원하는 '그린 예금'과 'ESG 론'을 출시해 지역 사회의 환경 대응을 촉진

 - ✓ 구마모토현 기쿠요 마을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며, 지역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

 - ✓ 일본 간사이 전력의 스타트업이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시작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9월 30일~10월 03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431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156건, 경제·관광 분야 105건, 지역·사회 분야 170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156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차량, 지하수, 서비스, 가치, 차고지증명제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서광로 버스중앙차로제 공사 재개 · 서광로에 체험용 섬식정류장이 설치되며 교통 혼잡 우려 제기 · 제주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고급화사업과 양문형 버스 도입 관련 논란 - 차고지증명제 관련 폐지 논란 ·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 불편 및 위장전입 문제로 폐지 및 개선 요구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가치 재조명 포럼 개최 ·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지하수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논의 · 국제수리지질학회의 지하수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발표 진행 - 먹는샘물 산업에서의 지하수 관리 강조 · 제주삼다수 등 먹는샘물 산업에서의 지하수 자원 관리의 중요성 재조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성과 ·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 1년 만에 3,700여 명 이상이 이용. · 내년부터 서비스 범위와 무상지원 기준이 확대될 예정 - 제주 공공교통 서비스 개선 · 제주시 서광로에 양문형 버스 정류장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 개선 시도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물 세계포럼에서 지하수 가치 재조명 · 지하수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 용암해수 활용 산업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암해수 산업을 '블루골드'로 육성하며 기능성 식품산업 다각화 계획 추진
	차고지 증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증명제 폐지 및 개선 논란 · 제주지역 차고지증명제가 주차 문제와 도민 불편으로 인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증대 - 차고지증명제 개선 용역 · 제도 개선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 브랜드 강화 노력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브랜드로 돌파하자'를 주제로 포럼 개최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 상승 · 제주 지역의 9월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채소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 휘발유 가격은 하락했으나 생활필수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외식비 상승 · 제주 외식비 상승세가 지속, 치킨, 돼지갈비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크게 오름
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 및 음식점 폐업 증가 ·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숙박업 폐업률이 증가 ·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 폐업 업체 수 증가 -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 · 제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관광경기 활성화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필요

○ 170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태풍, 해상, 인근, 이동, 낚시, 지하수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태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끄라톤' 북상 소식 ·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라는 소식 · 중심기압 925hPa, 최대풍속 시속 184km의 강한 세력 유지 - 태풍으로 인한 비 예보 · 10월 3일 제주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 강풍 및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제주 전역에서 대피 및 대비 필요
	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낚시 사고 · 서귀포 황우지 해안에서 낚시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낚시객이 숨진 채 발견 · 기상 악화로 해상 안전사고 증가 - 해상교통관제센터 개국 · 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가 개국해, 제주 연안 전역에 대한 관제 확대 · 재난 시 신속한 대응 가능성 강화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간도 해상에서 침수 사고 발생 · 횡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수 사고로 승선원 2명 구조 · 기상 악화로 인해 선박 침수 위험 증가 - 황우지 해안 실종 사고 · 서귀포 황우지 해안 인근에서 낚시객 2명이 파도에 휩쓸림, 한 명 실종 후 사망 확인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끄라톤의 이동 경로 ·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 남서쪽에서 북상, 이동 경로에 따라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해양사고 대응 · 제주 해양경찰, 해로드업을 통해 침수된 선박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조에 성공
	낚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바위 낚시 사고 · 서귀포 황우지 해안에서 낚시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이 15시간 후 사망한 채 발견 · 해경의 신속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조난자의 사망 확인 - 해상 안전 규제 강화 · 파도와 기상 악화로 인한 낚시 사고 빈발, 해경의 낚시 규제와 안전 점검 강화 요구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삼다수 지하수 관리 강화 · 제주 지역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와 보전 필요성 재조명 - 지하수의 중요성 재조명 · 제주에서 지하수 보존을 위한 다양한 포럼과 관리 계획이 논의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중국-동남아시아, 운명 공동체 구축 위한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회 중국-동남아시아 박람회 및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가 광시성 남녕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력을 논의하는 중임. 특히, 양측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주력 -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이미 15년간 상호 최대 무역 파트너로 협력해왔으며, 이를 통해 무역 규모가 6.41조 위안으로 급성장하였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상품들이 중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첨단 기술 상품 역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이번 박람회에서는 또한 '일대일로'와 동남아시아 개발 계획 간의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양측의 무역 협력 및 경제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p>* 출처: 경제일보</p>
	<p>○ 광시성, 민박 서비스 인증을 통한 농촌 활성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시성은 농촌 지역의 민박 서비스 발전을 위해 국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임. 이를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광시성의 민박 서비스 인증 시스템은 고객 만족도와 경험을 중시하며, 민박업체가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특히, 관광지와의 연계로 지역 주민들이 민박 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함 - 이번 인증 제도는 광시성 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농촌 지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역의 관광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박 서비스 산업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中国新闻网

○ 제3회 농촌 산업 및 문화 진흥 전시회, 지역 발전 가속화

- 제3회 농촌 산업 및 문화 진흥 전시회가 중국 샤먼에서 개막하였으며, 다양한 농촌 제품 및 관광 자원을 선보이며 지역 산업의 발전과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함. 이 전시회는 각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농촌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번 전시회는 4개의 주제 전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양한 농촌 경제 모델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특히,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농촌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
- 다양한 기업과 농업 생산자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지역 농업 및 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 경제와 도시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산업 진흥과 관광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출처: 中国新闻网

중국

○ 베이징, 저공 경제 발전 가속화 추진

- 베이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저공 경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저공 경제는 드론, 비행 자동차 등의 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 저공 경제 발전을 위해 베이징은 텐진 및 허베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내 기술 및 자원 공유를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저공 비행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응용 프로그램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번 계획을 통해 베이징은 저공 경제를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경제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저공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출처: 中国新闻网

○ 전국 최초의 스마트 관광 버스, 텐진에서 시범 운영 시작

- 텐진 에코시티에서 전국 최초의 스마트 관광 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국가의 친환경 교통 정책을 반영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음. 이 버스는 자동 운전 기능을 갖춘 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스마트 버스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장애물 회피 및 신호 인식 기능을 제공하며, 에코시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친환경 교통과 관광 산업의 융합이 기대되고 있음
-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에코시티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스마트 버스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출처: 中国新闻网

○ 5G-A와 AI의 융합,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약

- 2024 국제 정보통신 전시회에서 5G-A 기술과 AI의 융합이 미래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고속 통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실현되고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5G-A 기술을 통해 스마트 가전, 자동화 공장, 무인 운송 등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 융합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이 전시회에서의 다양한 사례는 5G-A와 AI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전한 연결망 구축이 기대됨. AI 기술의 진화는 향후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经济参考报

싱가포르

○ 싱가포르, AI 성장과 LNG 수요 급증 예상

- 싱가포르의 AI 및 데이터센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는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임
- 싱가포르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LNG 수입 터미널을 추가로 개발 중임
- 싱가포르의 녹색 전력 수입 목표도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환의 높은 비용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싱가포르는 에너지 전환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출처: The Edge Malaysia

- 싱가포르 기업, AI 기반 중소기업 채용 플랫폼 '보스잡' 성과 발표
 -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 율로 테크놀로지는 최근 AI 기반 채용 플랫폼 '보스잡(Bossjob)'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채용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음. 이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하고 있음
 - 보스잡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와 고용주 간의 매칭 성공률을 높이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이 플랫폼은 2026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3,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AI를 활용한 채용 혁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출처: Business Mirror, Passionate in Marketing

-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자들의 EU 규제 준수 지원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팜유 생산자들이 유럽연합의 산림 파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팜유 산업이 글로벌 규제를 따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생산 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팜유 생산자들의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음
 - EU가 산림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하게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팜유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규제에 맞춰 생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The Edge Malaysia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통화 스와프 협정 갱신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갱신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40억 링깃 규모의 현지 통화를 이용한 금융 거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음
- 통화 스와프 협정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며, 미국 달러 등 국제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무역 환경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협정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경제적 협력의 강화 신호이며, 양국은 향후 디지털화 및 이슬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출처: Bernama

○ 말레이시아, 아세안 서비스 허브로의 부상 목표

-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아세안의 선도적인 제조 및 서비스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을 통해 스마트 공장 설립 및 첨단 기술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려 함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아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함

* 출처: Bernama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재확인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싱가포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특히,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 SEZ)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임.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경제 성과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임
- 말레이시아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초과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특히, '인베스트 말레이시아 2024' 행사를 통해 투자 기회를 홍보하고 있음

* 출처: Bernama, NST Online

○ 말레이시아, 라오스와 에너지 협력 태스크포스 설립 예정

- 말레이시아와 라오스가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계획임. 이는 양국 간 전력 공급 확대 및 에너지 분야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현재 말레이시아는 라오스-태국-싱가포르 간 전력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아세안 전력망의 일환으로 전력 공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아세안 전력망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는 라오스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아세안 지역에서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임. 이러한 협력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The Edge Malaysia, Wilayah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 CCUS 부문 글로벌 허브로 도약 목표

- 말레이시아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관련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CCUS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30년간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임
- CCUS 부문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일환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임
- 또한, 말레이시아는 2024년 OGA(아시아 석유 및 가스) 행사를 통해 전 세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CCUS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Bernama, Tenaga Nasional Berhad(TNB)

일본

○ 일본 및 ASEAN, 지역 에너지 협력 강화

- 최근 아세안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일본은 전문 기술 인력 지원을 약속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일본의 이와 같은 협력 강화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출처: ASEAN.org

○ 일본크루즈, 도쿄만 크루즈 선박 37년 만에 교체

- 일본크루즈는 37년 만에 도쿄만에서 운항하는 레스토랑 크루즈 선박을 교체할 계획을 발표함. 새 선박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실내에서 음식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향상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임
- 새 크루즈 선박은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운항 중인 “레이디 크리스탈“을 대체하게 됨. 배터리도 함께 장착해 전기를 활용한 추진력도 제공할 예정임
- 또한 새 선박에서는 요리에 아키타현과 홋카이도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며, 일본크루즈는 이 선박을 통해 도쿄만의 새로운 해상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미야기현, 수도권 여자 대학과 협정 체결

- 미야기현은 수도권의 여자 대학 두 곳과 취업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이 협정은 도쿄여자대학과 도쿄가세이대학이 포함되며, 미야기현 내 기업과의 인턴십 및 취업 상담회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 이번 협정은 미야기현 출신의 여자 대학생들이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체결되었음
- 협정을 통해 수도권 학생들이 미야기현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UIJ턴*을 통해 미야기현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

**UIJ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을 의미)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아오모리현, 라이드쉐어 시범 운행 실시

-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의 카나기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시범 운행이 시작됨. 이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며, 주로 공공시설, 병원,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경로로 운행됨
-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차량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시내 주민은 500엔, 외부 이용자는 1000엔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함.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됨
- 이번 시범 운행은 2025년 1월까지 진행되며, 이후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운행할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쿠마모토의 버스·전철, 교통계 IC 카드 사용 종료 예정

- 쿠마모토현의 5개 교통 사업자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전국 교통계 IC 카드인 'Suica', '하야카켄' 등의 사용을 중단할 예정임. 대신 2025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 및 터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교통계 IC 카드 사용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시스템 유지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게 됨
-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현금 결제 또는 '쿠마몬 IC 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쿠마모토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북큐슈 토바타 물류, 대형 물류 거점 개설

- 북큐슈의 물류 기업인 토바타 물류는 80억 엔을 투자하여 대형 물류 시설인 '니시코 센터'를 개설함. 이 물류 센터는 북큐슈 고속도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대형 트럭 및 해상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 1층은 주로 가정 배송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되며, 2층은 트럭이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됨. 또한 수출입을 위한 해상 운송도 가능한 구조로, 향후 국제 물류 허브로 성장할 계획임
- 토바타 물류는 북큐슈 지역이 물류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임을 강조하며, 이번 물류 거점 개설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시가 은행, ESG 및 환경 대응 상품 출시

- 시가 은행은 고객의 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함. '그린 예금'과 'ESG 론' 등을 통해 친환경 투자 및 대출을 제공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그린 예금은 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며, 예금자는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ESG 론은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가 은행은 이러한 금융 상품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들의 환경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 출처: 日本經濟新聞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구마모토에서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범 운영

- 구마모토현 기쿠요 마을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차리차리'의 시범 운영이 시작됨. 이 서비스는 반도체 산업 집적이 진행되는 기쿠요 마을에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 이번 시범 운영은 2025년 3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정식 도입이 검토될 예정임. 자전거 수와 포트 설치는 이용자 수에 따라 조정될 계획임
- 기쿠요 마을은 이번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활용을 장려하고자 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일본 전력 스타트업, 지역 기업과 구직자 연결 사업 시작

- 일본 간사이 전력에서 분사된 스타트업 '소코나라'는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시작함.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 구직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칭된 기업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받음. 이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적합성을 높이고, 채용 과정에서의 실패율을 줄이는 것이 목표임
- 이 서비스는 2029년까지 3억 5천만 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먼저 후쿠오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